

2024년 연구·조사 | 2차

주문진 주민만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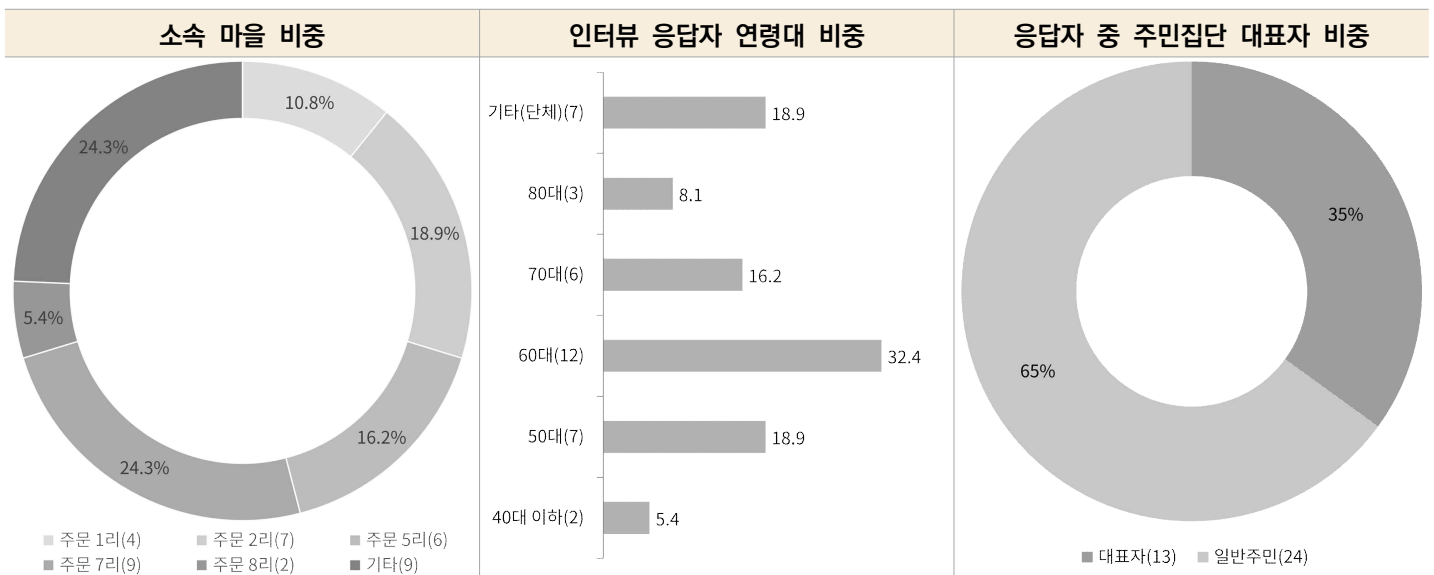
2023년부터 제2기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선정을 통해, 주문진항 인근 주문 1, 2, 5, 7, 8리의 공동체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마을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양적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과 만나 다양한 욕구와 지역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문 조사의 특성상 조사 과정에서 오간 많은 이야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역 사정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더 궁금한 자세한 사정을 알기 위해 주민 만나기(간단 인터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천 과정에서 많은 주민을 개별로 만나고자 했으므로, 녹음 기록을 남기지 않고,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글로 담았습니다. 녹음 기록을 남기지 않는 대신 최소한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에 응한 당사자에게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는 마을의 당사자(이장, 마을활동가 등)와 조사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확인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함께 각 현안을 살펴보고, 원인과 대안을 분석하고, 앞으로 해야 할 활동의 방향성을 고민했습니다. 모든 원인과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차원적 문제를 넘나들며, 주민이 주민 의식을 갖고, 공동체 활동에 임하도록 주문 마루 센터가 중심에서 조정, 중재의 역할이 수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마을 주민에게 현상만 묻지 않고, 주민과 함께 대안과 방향성까지 도출했다는 점에서 당사자를 임파워먼트하고, 새로운 욕구 및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에 함께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1 조사개요

| | | | |
|------|---|---------------------|--|
| 조사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욕구 조사에서 도출한 주요 주제(환경, 돌봄, 공동체 활동 등)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주민조직 세부 활동 주제를 성찰하고자 함.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첫인사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 | | |
| 과업기간 | 준비 | 1. 29.(월)~3. 8.(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설계 및 주민만남 준비 |
| | 진행 | 3. 11.(월)~5. 14.(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만나기 조사 실행 |
| | 분석 | 5. 16.(목)~7. 31.(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차 개별 분석, TF회의를 통한 주제별 분류, 주민 공유를 통한 최종 분석(마을활동가 워크숍 2회기 운영), 보고서 작성 등 다소 개인적인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마을활동가 논의하여 조정 주제에 맞게 적절히 분류 및 해석하였는지 검토 등 |
| 조사도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단 인터뷰 질문·기록지(동의서), 주요정보제공자 명단 | | |
| 조사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면조사 | | |
| 분석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별 분류 및 분석(※분석 효율성을 위해 구글 시트, GPT4o를 부분적으로 활용) | | |
| 수행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조사TF(박영민, 조예송, 이수정, 김한나, 이주원, 정신영, 김덕, 배시영, 전근홍) 주문진 마을활동가 13명(워크숍을 통한 조사 분석 지원) | | |
| 활용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의 돌봄, 환경 마을활동가 향후 활동 방향성 도출 앞으로 해야 할 복지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에 대한 포괄적 해석을 바탕으로 마을 맞춤형 복지기획 | | |
| 조사한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화 과정을 녹음하지 않았으므로, 담당 조사자가 현장에서 기록한 내용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주문진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실천적 조사 성격이 강하므로, 이번 조사 결과를 다른 마을에서 유사 사업을 진행할 때, 일반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 | | |

02 조사대상

| 연번 | 소속(마을) | 나이 | 활동참여의향 | 특정 참여 희망 분야 | 미참여 사유 | 비고 |
|----|--------|-----|--------|-------------------------|---------------|----|
| 1 | 주문 7리 | 80대 | 조건부 참여 | - | - | - |
| 2 | 주문 7리 | 80대 | 참여 | 정보제공, 도움이 필요한 가구 소개 | - | - |
| 3 | 주문 7리 | - | 조건부 참여 | - | 건강 문제 | 단체 |
| 4 | 주문 5리 | 70대 | 참여 | - | - | - |
| 5 | 주문 7리 | 80대 | 참여 | - | - | - |
| 6 | 주문 1리 | 70대 | 참여 | - | - | - |
| 7 | 주문 1리 | - | 참여 | - | - | 단체 |
| 8 | 주문 5리 | 70대 | - | - | - | - |
| 9 | 주문 2리 | 80대 | 참여 | - | - | 단체 |
| 10 | 주문 7리 | 80대 | 참여 | - | - | 단체 |
| 11 | 초등학생 | 10대 | 참여 | - | - | - |
| 12 | 주문 1리 | - | 미참여 | - | - | 단체 |
| 13 | 인근 상인 | 50대 | 참여 | - | - | - |
| 14 | 주문 5리 | 60대 | 참여 | 먹거리 관련 활동 | - | - |
| 15 | 주문 8리 | 60대 | 참여 | 프로그램 진행 시 주민 송영 등 | - | - |
| 16 | 인근 상인 | 70대 | 조건부 참여 | 치매 예방, 우울 완화 프로그램 | - | - |
| 17 | 주문 7리 | 50대 | 참여 | 적극적인 지원 | - | - |
| 18 | 주문 5리 | 60대 | 참여 | - | - | - |
| 19 | 주문 2리 | 60대 | - | - | - | - |
| 20 | 주문 2리 | - | 미참여 | - | 건강, 센터 물리적 위치 | 단체 |
| 21 | 주문 2리 | - | - | - | - | 단체 |
| 22 | 주문 7리 | 60대 | 참여 | - | - | - |
| 23 | 인근 상인 | 60대 | 조건부 참여 | 사업 홍보 협조 | - | - |
| 24 | 주문 7리 | 70대 | 참여 | 프로그램 참여 | - | - |
| 25 | 인근 상인 | 50대 | 미참여 | - | 직업 활동 | - |
| 26 | 인근 상인 | 50대 | - | - | - | - |
| 27 | 주문 8리 | 60대 | 조건부 참여 | 프로그램, 축제 참여 | - | - |
| 28 | 주문 2리 | 50대 | 조건부 참여 | 행사 참여 | - | - |
| 29 | 주문 5리 | 70대 | 참여 | 프로그램 홍보, 마을 잔치 기획 등 | - | - |
| 30 | 주문 1리 | 50대 | 참여 | 프로그램 홍보, 잔치 기획 등 언제나 참여 | - | - |
| 31 | 주문 5리 | 60대 | 참여 | 프로그램 홍보, 잔치 기획 등 언제나 참여 | - | - |
| 32 | 주문 2리 | 60대 | 미참여 | - | 마을 자체 활동 참여 | - |
| 33 | 인근 상인 | 60대 | 참여 | - | - | - |
| 34 | 주문 2리 | 60대 | 참여 | - | - | - |
| 35 | 주문 7리 | 60대 | 참여 |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 | - | - |
| 36 | 인근 상인 | 40대 | 참여 | - | - | - |
| 37 | 기타 | 50대 | 참여 | 관련 사업에 이용자와 함께 참여 | - | - |



03 조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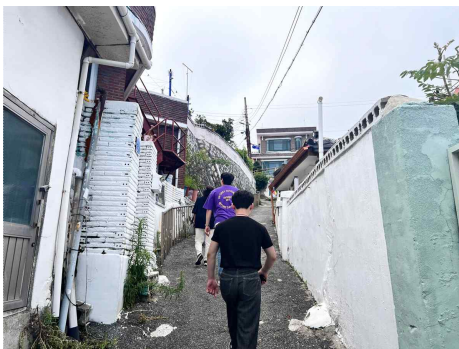
| 주민 만나기 대화 주제 | 마을활동가 워크숍에서 한 이야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자기소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 현재 우리 마을의 현안과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의견 - (주제1) 문화·예술 부족에 대한 생각 - (주제2)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생각 - (주제3)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에 대한 생각 • 현안을 ‘같이’ 해결할 방안 • 함께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 • 우리 마을의 강점(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들고 싶은 마을 모습, 해보고 싶었던 활동 주제 • (유사 활동에서) 좋았던 활동, 보완이 필요했던 활동 •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일 •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다른 해결책 등 꼬리 질문 |

04 마을활동가 워크숍 진행 사진

주민 만나기



마을활동가 워크숍



결론 도출을 위한 과정



05 조사하는 배경 2023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욕구조사 보고서 참고하여 구성

• [주제1] 문화·예술을 즐길 여건이 부족한 마을

- 가. 작년 사업 지역의 욕구 조사를 보면, 동네에 필요한 주민 모임 중 ‘문화/예술 활동 모임’이 3.11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모임이 만들어진다면 참가하고 싶은 모임도 ‘문화/예술 활동 모임’이 34.2%로 가장 높게 조사됨(이어서 친목 모임 18.5%). 반면, ‘문화/여가 활동 시설’은 주민이 생각하기에 다소 열악(동네 환경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 중 ‘문화/여가 활동 시설’ 문제 20.5%로 2위, 동네 환경에 대한 만족도 중 문화/여가 활동 시설 만족도 가장 낮음)한 상황으로, 현재 상황에서 슬기롭게 문화/예술 활동 모임을 이어가기 위한 더욱 세부적인 현안, (주민이 생각하는) 원인, 대안 등을 파악하고자 함. 이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 모임에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전략을 수정, 보완할 예정임.
- 나. 한편, ‘문화/예술’과 관련된 욕구는 ‘모임’ 형태뿐만 아니라 ‘복지 프로그램’ 형태로도 확인되었는데, ‘마을 축제’, ‘건강/운동 교실’, ‘인생 글쓰기 교실’, ‘노래교실’, ‘요리 교실’ 등이 주민 욕구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보임. 특히, 축제는 [개최 방식, 주제, 내용, 수행 주체] 등 요소에 따라 구현되는 형태가 다른 복지사업이므로, 주민이 인식하는 마을 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함. 또한, 건강/운동 교실에 대한 높은 욕구는 고령자 비중(44%)이 높은 사업 지역의 인구학적 배경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더 세부적인 구현 방식(강좌인지, 검진인지 등)을 질문하여 사업 진행에 반영해야 함(그 외 복지 프로그램도 주제는 확인되었지만, 구체적인 구현 방식, 장벽 등 검토 필요).

• [주제2] 끈끈하게 연결된 마을에서 서로 돕는 마을을 만드는 방법

- 가. 지역에 오랜 기간 정착하여 주민끼리 친밀하고(동네 지인과 거의 매일 만나는 비율이 57.4%), 교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고민 의논 상대 동네 이웃 45%), 건강 악화에 따라, 경사가 많은 지역의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만나기 어려워 지거나, 고령에 따른 지인 부재(상실)로 동네 이웃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 마을의 물리적 여건을 이번 사업을 통해 한 번에 바꿀 수 없지만, 그럼에도 마을에 형성되어 있는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고자 함(아울러, 질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활동에 동참하는 주민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음).
- 나. 또한, 거주 기간이 길지 않은(10년 미만) 지역주민은 동네 지인을 거의 만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끈끈하게 연결된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은 공동체 결속력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됨. 2023년 조사도 비확률 표본추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마을 경로당 등 커뮤니티 공간에 적극 참여하는 주민의 의견이 주로 대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주민 사이에서 파악되지 않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의 실제 생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다. 한편, 전반적으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요소 중 ‘도움이 필요한 이웃 돕기(57.7%)’로 지역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렇게 응답한 근거를 지역주민에게 다시 묻고, 원인을 파악하여, 대안(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을 도출한 후 마을활동가 등의 사업과 연계하고자 함. 특히, 욕구 조사에서는 이동 지원, 병원 동행 등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중심으로 물어보고자 함.

• [주제3] 동네 물리적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

- 가. 동네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오랜 기간 살아온 지역주민(58.1%)이 대다수인 마을에서 물리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 다소 많았음. 특히, (문화/여가 활동 시설을 제외하면)주차장(1.99점), 녹지 환경(1.99점), 운동/체육 활동 시설(2.06점)이 다소 낮음. 이번 사업을 통하여 물리적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으나, 강릉시의 다른 사업(주민 참여 예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속 개선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파악하고자 함. 또한, 거점센터 리모델링 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 구성을 최대한 듣고자 함.
- 나. 한편, 개인의 ‘집수리 서비스(3.03점)’에 대한 욕구도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됨. 독거가구의 가장 큰 불편한 점도 ‘집수리·수선(33.3%)’으로 나타나, 희망하는 집수리 서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해야 함. 간단한 집수리나 정리(청소) 욕구가 크다면, 마을활동가 집단, 지역 후원 연계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자 함.

06 주민만나기 활동 결과 및 앞으로 방향성 제안(표)

| 대분류 | 중분류 | 현안 |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 키워드 | 원인(지역배경) |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금 해볼 수 있는 것) | 관련 강점 |
|---------|----------------------|-------|--|-------|---|--|---------------------|
| 공동체 만들기 | 마을잔치 추진 (공동의 목적 만들기)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 마루 센터 거점으로 활용 • 신리천 유휴지 활용 | 마을 잔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지속성 • 홍보 부족 • 코로나-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리천 유휴지 활용한 행사 • 침체된 저녁 분위기 되살리기 (오일장 버스킹, 야행 등) • 도립대와 협력하여 행사 추진 해보기 • 각종 기념일을 맞아 행사 • 옛날 영화 틀어놓고, 음식 나눠 먹는 소소한 마을 잔치 해보기(1년에 4회 정도) | 자연환경 및 경관, 주민 간의 관계 |
|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초복 행사처럼 먹거리 잔치 희망 • 주민 노래자랑 • 음식 나눔 잔치(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나 간단한 국수, 떡 같은 음식) • 효도(경로) 잔치와 같은 느낌 희망 • 놀거리가 있는 행사 | | | | |
| | |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행사 진행 필요 (주먹구구식 진행 경계) | | | | |
| | | 기타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치 진행 시 주민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 • 2리 경로당 작은 잔치 자체 진행 중 | | | | |
| | | 제안 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사라진 작은 마을 잔치 활동 회복 희망 • 멀리서 진행되는 행사는 참여하기 어려움 | | | | |

| 대분류 | 중분류 | 현안 |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 키워드 | 원인(지역배경) |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금 해볼 수 있는 것) | 관련 강점 |
|--------------|------------------|---------------------|---|---------|---|---|-----------------------|
| 공동체 만들기 (계속) | 공동체 구성의 세부 요소 인식 | 마을 간 심리적 장벽이 연결을 방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뜰마을 때 7리 방문 시 불편한 느낌 (남의 집에 있는 느낌) 노인정이 마을마다 있어서, 같은 마을 어르신끼리는 사이가 좋은데, 다른 마을 어르신과는 교류가 많지 않음 | 심리적 거리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센터 이용자 다수가 특정 마을 주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벽이 낮은 사회서비스를 거점센터에서 제공하여, 다양한 사람이 쉽게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정기적으로 간단한 수선 서비스 제공(마을활동가) 친한 주민들을 통한 입소문 내기 투호, 오재미 차기, 다트, 탁구대 등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요소 만들기 간단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10~20분 운영하여 부담 없이 거점센터에 오게 유도 문화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 대상 홍보 <p>※마을활동가가 생각하는 거점센터가 중요한 이유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사람 구경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관리도 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p> | 주민 간의 관계, 생활 편의성 및 안전 |
| | | 안전감 있고 개방된 공간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뜰마을 당시 거점센터의 원 목적은 주민 소통 공간으로의 이용 그러나, 주민들 관심이 줄어들고 특정 주민만 이용하면서, 각 마을 주민이 모이는 공간 만들기에 어려움 새뜰마을 2리 거점 장소 준공 당시 주민 소통 용도로 홍보했지만, 현재는 관리의 어려움 발생(상시 공간개방 등) | 폐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줄어든 주민 관심 아는 주민만 만나는 경향 다른 리는 다른 마을이라는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마련 소통 창구의 구실을 하는 사람(마을활동가) 필요 주민을 위한 공간 상시 개방 희망 마을에 있는 공용 공간을 마을에서 함께 관리하는 방안 논의 시도하기 (열려 있는, 투명한 운영을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 | |
| | | 공동체 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 부족(조리 공간 등) 주민들이 담소를 나눌 공간 부족 실외에서 모일 수 있는 공간(정자 등) 보수 필요 거점센터는 사랑방으로 꾸리고, 경로당은 거점센터를 가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이기를 바램 | 열린 사랑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 부족 중간 지점 부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을 위한 공간을 계속 개방 필요 정자 바람막 보수 양지바른 골목에 의자 두기 주문 마루 거점센터 리모델링 단순 프로그램 외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공동체 식사를 통해 당번을 돌아가며 활동을 주관하고, 함께 먹거리를 준비해 오거나, 만들어 먹으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활동 추진하기 | |

| 대분류 | 중분류 | 현안 |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 키워드 | 원인(지역배경) |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금 해볼 수 있는 것) | 관련 강점 |
|----------------------|--|------------------------|---|--|---|---|-----------------------|
| 공동체 만들기 (계속) | 공동체 구성의 세부 요소 인식 (계속) | 공동체 거점 공간에 대한 지속 지원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리에서 자체 운영하는 거점센터(카페, 세탁) 운영 경비 걱정 (미인가 경로당)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지만, 공간 운영에 대한 도움 필요 | 운영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은 이용수요 봉사자 부족 순응적 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사 형식으로 특정 마을 주민이 운영을 보조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음 모임 공간을 지속 지원하여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우면 좋겠음 | 주민 간의 관계, 생활 편의성 및 안전 |
| | | 주민 모임의 구실 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임 공간은 있지만 모임 이유가 부족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의 사정을 알기 어려운데, 정기적인 식사 모임을 통해 주민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음 | 명확한 모임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 다른 취미 마을에 경사로가 많아 목적이 없으면 모이기 힘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하며 주민과 만나기 작은 도서관과 같이 독서 모임 만들어 보기(소설, 문화, 역사) 월 1회 이상 영화 상영 간단한 영상 촬영 활동 하기 기타 공동체 프로젝트 고민을 위한 주민 워크숍(반사회) 정기 개최 선진지 견학으로 통찰력 확대 | |
| | | 공동체, 알고 지내는 편한 관계에서 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 알고 지내는 사람과 모여서 이야기 나누기 그러한 사람들과 음식 먹는 것이 가장 즐거움 | 편한 관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형성되어 있는 모임(공동체)을 다른 활동으로 참여하도록 촉진 시도 | |
| | | 부족한 공동체 활동 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공동체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생계 우선에 따른 시간 부족) 프로그램 참여할 인원 부족(적은 수요) 인구 적은 젊은 연령대와 많은 노년층이 서로 어울리지 못함 | 시간과 수요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건강상 문제 적은 유동 인구 생계 문제 우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마을활동가가 있지만, 마을활동가가 또 다른 형태의 단순 서비스 제공자가 되지 않도록, 마을이 함께 동참하는 방안 필요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검토(소통, 리더십, 마을활동, 문제해결 등) 정기적이고, 1시간 단위의 활동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게 동참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마을활동가와 함께 제안하고, 실행하기 | |
| | | 협력과 소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이후 주민단체 간 소통이 부족하여 체육대회가 잘 진행되지 않음. 정상 추진되도록 단체 간 의사소통 촉진 필요 | 소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하고 있거나, 마을 주민에게 의미 있는 행사라면, 단체 간 협의를 촉진 및 중재하며 원활히 이루도록 돕기 이 과정에서 이미 행사기획, 추진 관련 경험 주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 갈등과 대립에 따른 마을 분위기 와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특정 마을이 갈등 속에서 분위기가 와해 새뜰마을로 인해 마을이 갈라짐 사람과 사업 모두의 문제라 인식 | 대립, 갈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주민 대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Key person 간 갈등 해소 필요 | | | |

| 대분류 | 중분류 | 현안 |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 키워드 | 원인(지역배경) |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금 해볼 수 있는 것) | 관련 강점 |
|------------|--------|-----------------------------|---|-----------|---|--|-------------------------------|
| 복지 프로그램 욕구 | 즐거운 노화 | 가변성 높은 주민 일상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마을 자체 프로그램이 많아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필요(단순 프로그램 지양) • 고정적으로 반복되는 프로그램은 생계 등 이유로 참여가 힘든 경우가 다소 많음 • 고정적인 시간으로 개인 일과와 맞지 않아 참여가 힘든 경우가 많음 •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은 프로그램 희망 (덜 힘든데, 신나는) • 무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활동 필요 | 차별화, 유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문화 혜택 • 생계 우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를 촉진하는 꾸준하고 반복적인 이벤트(공동체를 통한 문화 활동 외에도 찾아가는 음악회, 신나는 예술여행 등 외부 문화 예술 자원도 지속 연계) • 저녁 시간대를 활용한 프로그램 고민 • 참여가 강제적이지 않은 프로그램 고민(복지관 측, 평균 연인원 관리가 핵심) • 생계로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지역주민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만들기 • 노인복지관의 기획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자연스럽게 집단 구성하도록 돕기 | 교통 및 접근성, 자연환경 및 경관, 주민 간의 관계 |
| | | 문화환경이 부족한 마을에 대한 문화 복지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내 영화관 등 전반적인 문화 시설 부족 • 즐길 거리, 먹거리 모두 부족(큰 다리 넘어가면 조금 있는데 여기는 없음) | 문화 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가 당장 환경 조건을 바꿀 수는 없으니,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시도를 고민하기 • 예: 영화관이 없다면, 함께 팝콘을 나누고, 주민이 원하는 영화 틀어놓기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면, 종종 작은 잔치를 주민끼리 모여서 준비하기 | |
| | | 다양한 문화, 여가 콘텐츠 제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붓글씨와 같은 정적인 프로그램 • 계절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 찾아가는 미술 프로그램 • 만들기 프로그램이 만족도 높음 • 영상 시청 프로그램 • 요가, 사물놀이 • 노래교실 • 배드민턴, 탁구, 축구 등 운동 관련 활동 • 노래, 화훼, 율동, 운동 프로그램 • 한글 배우기(성인 학습 프로그램) •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교육 | 다양한 PG 욕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에 대한 두려움 • 가르쳐 주는 사람도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서낭당 제사 날짜가 상이, 단오제 같은 풍어제 행사 기획(3일 규모) • 새로운 것을 두렵지 않게 배우도록 반복 학습 필요(돌봄 활동가의 스마트폰 알려주는 활동) • 찾아가는 프로그램 기획 검토 • 주 참여 대상 집단인 '후기 고령인구' 신체 건강 고려하여 프로그램 기획 •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수시 제공(분리수거-환경, 스마트폰-디지털) | |

| 대분류 | 중분류 | 현안 |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 키워드 | 원인(지역배경) |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금 해볼 수 있는 것) | 관련 강점 |
|----------------|--------|---------|---|-----------|---|--|----------------------------|
| 복지 프로그램 욕구(계속) | 건강한 노화 | 신체건강 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건강 프로그램도 더 많기를 희망 • 운동, 건강, 체조 관련 프로그램 희망 • 전문 강사의 도움으로 건강 유지를 위한 활동 희망 • 의료지원, 한방치료 활동 희망 • 주된 관심사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간단한 운동 코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로 건강 관심 높은 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0~20분 움직이는 건강증진 프로그램(노인층 위주 프로그램 희망) • 간단하게 산책 같이 다니며, 사진 찍는 활동 • 간단한 운동기구 설치해서 운동 여건 만들기 • 지역사회에 있는 외부 건강 자원(건강검진, 의료상담, 한의원 등) 적극 연결하기(보건소, 건강위원회 등) | 교통 및 접근성, 주민 간의 관계, 생활 편의성 |
| | | 정신건강 증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 예방,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영화, 만들기 등)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극 활동(심리치료) • 독거노인 치매, 우울감 프로그램 필요 | 우울, 치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 높은 독거가구 비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활동가가 간단하게 준비하여 인지 지원 활동 해보기 • 연극 활동은 완벽한 수행보다는, 부담되지 않게 수행하는 방안 고민하기 | |

| 대분류 | 중분류 | 현안 |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 키워드 | 원인(지역배경) |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금 해볼 수 있는 것) | 관련 강점 |
|------|------------|-----------------------|--|------------|--|---|----------|
| 복지지원 | 복지 사각지대 문제 | 공적 돌봄 외 사각지대 주민 돌봄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척도 없고 요양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주민은 다른 형태 돌봄 필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방문 필요 <i>(집에만 누워있는 지역주민)</i> 많은 사람이 요양보호를 받고 있으나, 요양보호사 외 시간에도 말동무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음 다만, 남성 노인들은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임 | 공적 돌봄 밖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 독거노인 다수 생활 요양보호 외 시간은 홀로 보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 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거·위생관리 가장 시급(마을활동가끼리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부터 주거 개선 다뤄보기) 가능하다면, 주민의 집을 ‘일일 사랑방’으로 만들어서 작은 모임 만들어 보기 (혼자 있는 시간에 주민끼리 연결될 수 있는 방안 고민) 거부하는 경우, 정신질환이나 자존심, 오해, 우울증, 치매는 없는지 헤아려 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기, 간단한 물품 전달하며 안부 묻기(주는 사람 태도가 아니라 당사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태도로 활동하기) | 주민 간의 관계 |
| | | 당사자 맞춤형 정보전달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는 구조 정말 힘든 사람은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 같음 <i>(어렵פות이 들려오는 정보)</i> | 맞춤형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가 잘 안됨 발굴도 잘 안됨 서류상 허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복지 전달 과정에서 마을활동가-복지관-이장과 긴밀한 협력 필요 다양한 주체가 서로 소통을 잘할 방법을 고민하기(간담회, 협의회, SNS운영 등) 마을의 강점을 알리면서 지역에 맞는 소통 채널 운영(유튜브, 라디오 등) | |
| | | 체계상 허점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 수급자는 혜택을 받지만 바로 위에 있는 사각지대 주민은 지원이 전혀 없음 개인의 자존심에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음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로 수급 탈락 실거주지가 다른 주민은 복지에서 소외 | 공적 복지 한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상 허점 자녀 거주지 이동 후 부모 주소지까지 일괄 변경함에 따라 실거주지 차이 발생 수급 여부 판단 시 재산만 보는 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관이)공공에 지속 소통하고 건의하기 공백이 발생한 영역은 민간 복지 영역에서 사례관리 또는 마을 활동으로 다루기 | |
| | | 강한 결속 바깥의 소외된 주민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속된 공동체 밖 주민 파악 필요 경로당 노인회 소속 외 주민은 잘 모름 얼굴을 아는 이웃의 어려움만 파악되어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의 어려움을 알 수 없음 중독 문제를 겪는 소외 주민이 보임 | 소외 주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와 우리뿐만 아니라 마을을 살아가는 모두가 최소한 느슨한 소속감과 안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마을 수시로 돌아 다녀보기, 한끼드림 부식 전달 도우며 고립가구 만나기, 걱정되는 주민을 안내할 수 있도록 쉬운 창구 만들기(본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참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집단, 공동체, 단체 간 네트워크를 돕기(공동의 목표 의식을 만들기-작은 잔치, 마을 의제 발견 등) | |

| 대분류 | 중분류 | 현안 |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 키워드 | 원인(지역배경) |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금 해볼 수 있는 것) | 관련 강점 |
|------------------|--------------|---------------------------------|---|-----------------------|--|---|------------------------------|
| 복지지원 (계속) | 복지지원 욕구 | 거동 불편한 주민에 대한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동 불편 가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운행 필요 고령으로 인해 거점센터 방문이 어려움 | 이동 지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문마루 거점 센터를 오갈 수 있는 작은 마을 셔틀 운영 단, 법이나 보험 등 한계를 확실하게 점검하여 시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보행보조기(실버카), 전동 휠체어 수리/교체 필요 | 주민 간의 관계 |
| | | 생활고충관리 (마을활동가의 활동 요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식들도 도와주지 못하는 소일거리를 도와주는 활동 희망 식사, 말동무, 청소 관련, 병원 동행 (이동지원), 찾아가는 음식 나눔 활동 집수리, 주택 보수, 생필품 지원 필요 어려운 복지 신청 실질적 도움 | 생활 고충 대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동 마을관리소 마을활동가의 생활고충관리/간단 집수리 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마을활동가의 상시 활동 요소로 고려하기) 이/통장과 역할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역할 분담 등 협의 필요 마을활동가-이장 간 협력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함께 교육 받거나 교류할 기회를 충분히 조성하기 간단한 집수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려면, 집수리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 받기 간단 집수리를 통해 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 증진 기대 독거노인 안심벨 등 장치 중 건전지로 가는 것들은 건전지 다 닳으면,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섬세하게 살펴보기 | |
| 경제 및 지역개발 | 지역경제 문제 | 수산업 쇠퇴와 늦은 도시개발로 인구 유출 지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별로 없음 과거보다 바다에 고기 많이 없어서서 일자리 줄었음 어업(수산업) 쇠퇴로 인한 수요 및 경기 하락 발전이 더딘 지역이라서 젊은 사람들은 다 외지로 떠나감 | 지역 경제 쇠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지에 비해 차별점 부족 자원과 볼거리 부족 지역 규모 작음 고령화 일자리 부족 도시개발 지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으로 경제적 문제 해결은 시책 차원의 해결이 요구됨 지역화폐 제도 만들어서 편의점이나 가까운 마트에서 활용하도록 추진 (다른 지역의 사례)자기 돌봄이나 활동 정도에 따라 쿠폰으로 환급하여 원하는 굶즈, 물품 등을 얻도록 하는 제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관광요소 개발 필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사업 등 | 교통 및 접근성, 자연환경 및 경관 |
| 지역의 물리적 환경 | 건물관리 및 보수 | 시급한 노후 주택 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벼락, 벽지, 지붕, 싱크대, (재래식)화장실 등 집수리 필요 판잣집이 많아 열악한 주거 많음 우풍, 물샘, 병충해 문제 방치된 빈집 문제 개선 필요 화장실에서 벌레나 달팽이 출몰하여 사용에 불편을 겪음 노후 주택(아파트) 안전 점검 필요 | 노후된 주택 관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뜰마을 지원 낮은 형평성 남고 관리되지 않은 환경 방치되거나 오래된 건물 재산 소유가 복잡한 땅이 많아 빈집 문제 해결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의견을 취합하여 정말 필요한 주거 여건부터 개선하기 (강릉시)가능하다면, 빈집 철거하여 문화공간이나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기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외부 자원 연계 적극 추진 골목에 화사한 분위기가 들도록 화초가 많으면 좋겠음 방재는 시에 요청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수요가 있는 주민은 신청하도록 안내하기(마을활동가) | 주민관계 |
| | | 공용 시설 관리 및 보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길 계단, 안전바 노후 공용 화장실 관리 문제(청결도 등) 새뜰마을 진행 이후 망가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 | 공용 시설 관리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되지 않은 환경 개인 화장실은 정화조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공용 시설이 잘 관리되도록 마을을 돌아다니며, 문제점 확인하고 개선 요청하기 공용 화장실은 현재 공공 일지리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나, 그 외 주체가 관리하는 공용 화장실의 위생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 대분류 | 중분류 | 현안 | 주민이 이야기한 내용(해설) | 키워드 | 원인(지역배경) | 대안(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제안/지급 해볼 수 있는 것) | 관련 강점 |
|----------------|-----------|---|---|--|--|---|-----------|
| 지역의 물리적 환경(계속) | 기초 인프라 부족 | 주차 공간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 공간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많아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소상공인, 지역주민 등) | 주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좁은 해안도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릉시)마을에 남는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조성하기 | - |
| | | 제반 시설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마을에 보충되면 함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적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난방이 힘들 | 제반 인프라, 운동 기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문마루 거점 센터 리모델링할 때 공간 안에 간단한 운동 기구 추가(탁구대 등) | - |
| | | 마을 내 이동 편의 증진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여건상 장애인 이동 불편 경사로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음 실버카도 이동하기 어려운 골목이 많음(불당골 인근) 밤길이 어두워 이동이 불편함 안전 손잡이 파손 문제 골목길 겨울철 빙판길 형성으로 일시적으로 고립되는 주민도 있음 낙상사고 발생 위험 골목에서 주민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함 | 이동 편의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문제 거점센터 높은 위치(언덕 위) 고령화 염화칼슘 및 제설 장비 미비 제설 지원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래식 화장실 등 마을 곳곳 시설의 문턱, 세면대 등 위치가 다시 고려되어야 함 대문 보안등 고치기 가능하다면, 미끄럼 방지 시설 확충하기 눈이 많이 오면, 마을활동가와 함께 눈 치우기 등 | 주민 간의 관계 |
| | 환경문제 | 마을 쓰레기 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심하고 악취가 있음 반려견 에티켓 문제 / 반려견 산책할 때 배변을 치우지 않아 도로에 방치됨 바다 쓰레기 많음(불꽃놀이 쓰레기 등) | 환경 오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투를 구매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종종 발생 분리수거 중요성 인식 부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마다 추가 쓰레기통을 설치했지만, 악용하는 주민이 많아 그만둔 적이 있음 쓰레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같은 방식으로 활동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므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보완된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분리수거의 중요성은 교육보다는 실생활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가 돕기 | 자연환경 및 경관 |
| | 안전 확충 | 안전사고 예방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가구, 노인가구 대상으로 안전교육 필요 | 안전 사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대처 미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일상생활 안전교육(강릉소방서 도움) | 주민 간의 관계 |
| 재난대응 문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도로가 부족하고, 용구들이 점검이 잘 되어있지 않음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음 | 재난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목으로 이루어진 마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도로가 부족하여 재난 발생할 때 대응력이 낮음 집마다 화재경보기, 소화기 설치 돕기(건망증 있는 경우 큰 도움이 됨) 주민끼리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본관 사회재난대응복지사업 참고) | | |

07 주민이 생각하는 우리 마을 강점

| 구분 | 내용 |
|-------------|--|
| 교통 및 접근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7리는 큰길이 잘 되어있어 다니기 좋음 언덕 중간만 빼면 차가 다 들어갈 수 있음 양양 고개가 있어 대중교통이 편함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이 비교적 가까이 있어 좋음 |
| 자연환경 및 경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한 경치, 맑은 공기 등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이 좋음 바다가 가까이 있어 쉽게 놀러갈 수 있음 바다와 산이 가깝고, 자연경관(풍경)이 좋음 바다 환경이 매우 좋음 공기 좋고, 물이 맑음 좋은 공기, 시원하고 살기 좋음 공기질이 좋고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음 노인 일자리 덕분에 골목길 환경이 더욱 잘 관리되고 있음 |
| 주민 간의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심이 좋고, 정이 많음 이웃 간 부딪힐 일이 많이 없음 주민이 서로 친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정겨움 이웃이 좋아 동네 마실 하기 좋음 주민이 서로 교류를 많이 함 매일 보는 주민들과 잘 어우러지는 동네 택시 기사와도 안면이 있을 정도 단독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웃끼리 교류와 공유가 많음 이웃끼리 친밀도가 높음 정이 많고 서로를 챙김 마을의 빈 땅을 주민이 서로 활용하며 정답게 살아감 주민들 단합이 좋음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순수함/사람들 성격이 순함 (노인일 자리를 줌) 활동적인 분이 많음 주민들과 단합이 잘 되어서 정이 들어 떠나고 싶지 않음 소통이 잘 되는 마을, 정이 많은 마을 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을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함 |
| 생활 편의성 및 안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에 도둑(범죄)이 없고, 정이 많음/조용한 마을 싱싱한 생선이 많음 해변 곳곳에 있는 화장실 시설이 좋음 새뜰마을(도시재생) 사업 하면서 과거보다 마을이 깨끗하게 보임 정자나 운동기구, 경로당 시설이 잘되어 있음 |

08 이야기 분류 번호표

| 대분류 | 중분류 | 번호 |
|------------|-------------------------|--|
| 공동체 만들기 | 마을잔치 추진 (공동의 목적 만들기) | 1, 4-1, 7-1, 56-1, 70, 100-1, 104-1, 112-1, 128-1, 128-2 |
| | 공동체 구성의 세부 요소 인식 | 1-2, 2, 17, 20, 28, 31, 31-2, 41-1, 44, 48-1, 57, 60, 67, 68, 79, 95, 98, 108, 120, 121, 121-1, 123, 126 |
| 복지 프로그램 욕구 | 즐거움 노화 | 1-3, 7, 10, 24, 31-1, 34, 37, 45-1, 48, 84, 88, 92, 96-1, 100, 104, 108-1, 112, 116 |
| | 건강한 노화 | 4, 14, 41, 52, 53, 56, 76, 80, 124, 124-1, 128 |
| 복지지원 | 복지 사각지대 문제와 복지지원 욕구 | 5-1, 8, 16, 18, 23, 25, 29, 36, 42, 45, 55-1, 72, 73, 77, 81, 85, 93, 97, 101, 105, 107, 109, 117, 122, 125, 129 |
| 경제 및 지역개발 | 지역경제 문제 | 3, 12, 13, 27, 40, 55, 58, 59, 87, 90, 123 |
| 지역의 물리적 환경 | 건물관리 및 보수 | 1-1, 5, 9, 11, 19, 35, 43, 58, 71, 74, 75, 83-1, 94, 101-1, 103 |
| | 기초 인프라 부족 | 6, 15, 22, 30, 43, 51, 54, 64, 72-1, 89, 92-1, 96, 102, 110, 115, 119 |
| | 환경 문제 | 35, 39, 132 |
| | 안전 확충 | 91, 106, 114, 118, 130 |

09 [결론] 주민 만나기 결과(요약)와 현재 사업과의 연결성

| 2024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방향성 사업의 비전 사업의 목표 | | 요약 및 향후 계획 마을활동가 활동 방향과 세부 사업 방안 제안 |
|---|-------------------------------------|--|
| 건강하고 서로 끈끈한 마을 집밥 레시피, 한끼 식탁, 건강관리, 식생활 돌봄 활동가 등 | 식생활 돌봄 활동을 기반으로 건강한 마을 만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이 당번제로 돌아가며, 먹거리를 준비해 오거나, 함께 만들어 먹는 공동체 식사(소셜다이닝) 모임을 기반으로 서로를 느슨하게 돌보는 체계를 만들게 도와야 함(식생활 돌봄 마을 활동가, 지역주민). • 초반에는 마을활동가가 주민을 공동체 식사에 초대하는 형태가 된다면, 마을 활동가 또한 공동체 식사 운영을 위한 기초 역량(요리, 이야기 풀기 등)이 준비되어야 함. |
| | 공동체 거점 공간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활동가는 단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주민 당사자이면서, 주민과 주민을 매개하는 역할을 해야 함. 이를 위해, 교육과 선진지 견학으로 통찰력,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안전감이 있고, 개방된 공간은 공동체 활동을 위한 필수 요소임. 우선, 많은 주민이 공동체 공간을 이용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공간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함. 예를 들어, 마을활동가 정기 활동일마다, 다양한 사람이 쉽게 오도록 ‘문턱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겠음(간단 수선, 공구대여, 간단 인지 훈련 PG, 스마트폰 일일 질문 코너 운영, 분리수거 정보 ‘꿀팁’ 안내, 간단한 집수리 등). • 한편, 사회복지사도 중재자로서 단체와 단체의 협력을 끌어내야 함. 특히, 코로나19 등 모종의 이유로 단체/주민 간 협력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다고 하면, 주문 마루 센터와 함께 풀어나가는 것도 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좋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다른 형태의 공동체 활동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사람들끼리는 잘 연결되어 있지만 마을 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특정 목표(모임의 구실)를 바탕으로 모이도록, 초기 활동 시 적절한 촉진과 지원을 해야 함. |
| | 주민이 말하는 마을 현안을 같이 해결해 가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목표나 소재로는 식사, 독서, 문화/예술 동아리, 마을 축제 기획 등 될 수도 있고, 모임 구성을 위해 전체적인 주민 강점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반사회 성격으로 주민 워크숍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음. • 노인 일자리 등으로 하루 일정의 변동이 큰 지역주민 특성상 1시간 이상 단위로 모이기에 부담이 됨. 당사자들의 일상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부담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형태(시간, 장소 등 고려)로 기획해야 함. • 거동이 불편하여 주문 마루 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어려우면, 마을활동가가 당사자의 관계망이 되며, 안부 확인, 주거/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겠음. 다만, 마을 특성상 곳곳에 사랑방 역할을 하는 지역주민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민의 집을 돌아가며, 일일 사랑방(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운영하여 느슨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시도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요양보호를 받더라도 그 외 혼자 있는 시간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기므로, 이러한 방식은 거동 불편, 건강 악화 등으로 공동체 연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소외감을 줄일 수 있음. 단, 동시에 건강 악화 등으로 외부와 물리적 연결이 힘든 주민을 직접 지원할 마을 자원 개발도 필요함. • 복지 전달 과정에서 정보 누락으로 복지/민원 신청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하는데, 주문마을 기록 제작소, 마을활동가(아웃리치, 한끼드림 지원 등)를 통해 복지 정보제공 체계를 보완하면 좋겠음. 이 과정에서 이장과의 역할 규정도 중요함. |

| 2024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 방향성 | | 요약 및 향후 계획 |
|--|-----------------------------------|---|
| 사업의 비전 | 사업의 목표 | 마을활동가 활동 방향과 세부 사업 방안 제안 |
| <p>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의 마을</p> <p>노후주택 개선 사업, 재난 대응 복지, 환경 개선 활동가 등</p> | <p>주민이 말하는 마을 현안을 같이 해결해 가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의견을 취합하여 정말 필요한 주거 여건부터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함. 공공이 해야 할 일이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어야 함. 단, 마을활동가가 마을의 무장애 조성, 위험한 장소, 재난 안전 위협 등을 복지 감수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좁고 경사가 많은 마을 특성상, 장애나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긴급 대피가 다소 어려운데, 이를 보완할 방안도 고민해야 함(예방 차원에서 장비 설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례 파악, 가구별 맞춤형 대응력 증진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과 훈련 등). 마을에서 쓰레기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음. 다른 단체에서도 필요에 따라 파일럿 사업(분리수거장 설치)을 시도해 봤지만,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았음. 마을활동가가 분리수거 방법을 지속 전파하는 정보 안내 활동,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자원순환운동본부 등의 단체와 협력한 참여형 캠페인 활동(홍보성 캠페인은 지양)을 전개하면 좋겠음. 이후에 분리수거장 추가 조성 등 조치를 병행하는 방법도 제안함. 길거리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 골목에 화초를 심어 화사한 분위기를 만드는 시도도 필요함. 깨끗한 바다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마을이나, 바닷가 인근으로 쓰레기를 허락 없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음. 환경 마을활동가, 주민과 함께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며 공동체 의식을 증진해 보는 시도도 권함. |
| <p>교육·문화·예술이 가득한 마을</p> <p>그림 화방, 등대 올림 합창단, 화사한 인생, 에코브릿지, 꿈글터 등</p> | <p>주민이 말하는 마을 현안을 같이 해결해 가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로 인해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 주민이 문화를 충분히 누리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 참여를 촉진해야 함(복지 프로그램, 문화/예술 모임, 신나는 예술여행과 같은 외 부자원 연계 등). 또한, 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찾기 위해, 프로그램/활동 시간대를 다양화하는 시도도 필요해 보임. 일단, 사람이 모이면 기획된 프로그램 전·후로 지역주민이 교류하게 도와서, 자연스럽게 모임 형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함(참여 동기 확인하여 같은 목적 공유하기, 유대 강화를 위해 특정한 활동 제안하기, 이야기 주제 던지기 등). 문화/예술에 대한 물리적 여건을 당장 개선하기 어려워, 마을 사람끼리 할 수 있는 노력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임. 특히, 물리적 환경은 당장 개선할 수 없어서 낙담, 무력감이 인터뷰 과정에서 보이기도 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끼리' 시도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면, 마을의 강점과 활동 목적성이 보이면서, 공동체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봄.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활동 소재(주제)가 제안되었으나, 기존 욕구 조사 예측 범위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음. 단, 구현 형태 측면에서, 고령자가 많은 마을인 탓에 큰 동작이 요구되는 활동보다 비교적 쉽게 참여하고,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문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외부 자원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직접적인 욕구에 대응해야 함. |
| <p>주민들의 가치를 공유하는 마을</p> <p>주문마을 기록제작소, 월간 주문경(잔치)</p> | <p>지역 문화·예술을 만들어 가는 주민으로 성장하기</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자가 주도하는 큰 행사보다 주민이 모여,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작은 잔치를 자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음. 특히,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가 큰 것에 비해 지역 내 여건이 부족하므로, 마을에서 주민(활동가)이 당장 시도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것이 중요함. 반복 언급된 영화관람 소재는 비교적 쉽게 이를 수 있으므로, 정식 개소 전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음. |